

세라믹단열재, 카본 전문회사 (주)가람

전문화, 특성화로 글로벌경영 추진한다

비록 몸집은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못지않게 세계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주)가람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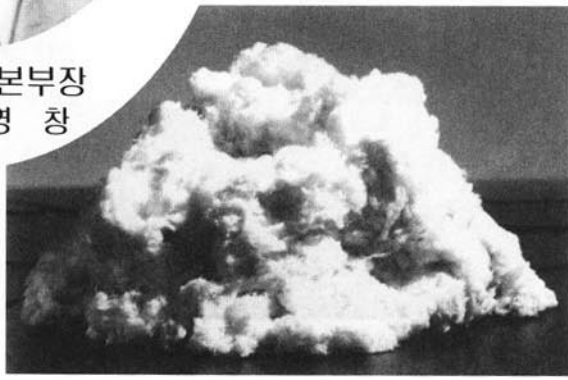
(주)가람은 카본과 세라믹분야 전문기업으로 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78년 영국의 MORGAN그룹과 합작하여 가람카본(주)라는 상호를 달고 carbon brush 및 기계구조용 카본, 흑연 열교환기를 주생산품으로 성남공장을 준공한 것이 그 시작이었고 이후 90년에 MORGAN그룹의 계열사 THERMAL CERAMICS와 기술제휴하여 세라믹 단열재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가람으로 상호가 바뀌면서 사업분야가 카본과 세라믹 단열재로 나뉘어져 지금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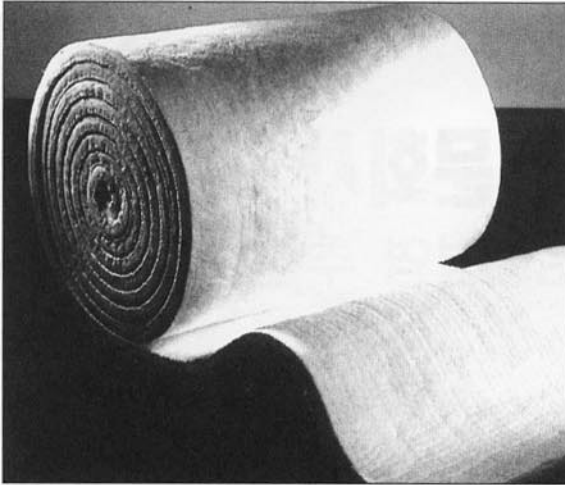
(주)가람은 현재 국내 카본시장 70%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시장에는 모터에 포함되어 간접수출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편 세라믹 단열재 분야로는 호주



세라믹사업본부장
이성영 창

(Morganite)로부터 15년 정도 수입 해오던 세라믹 단열재의 대명사인 Kaowool Blanket을 97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수입대체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대만, 필리핀,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 수출하여 Kaowool Blanket의 명성과 품질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주)가람은 세라믹 단열재 중에서도 세계 4개국만이 생산에 참여하는 Pyro-Bloc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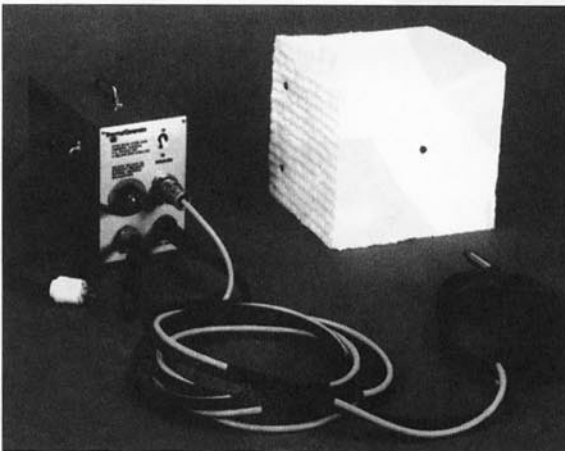
KAOWOOL BLANKET

는 세계특허제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사원 220명, 성남에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고 대구에 카본공장과 세라믹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기엔 몸집이 작은 (주)가람이 세계시장에서 특성화된 제품으로 부단히 활약, 바야흐로 글로벌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었다.

■인기상품 Pyro-Bloc

Pyro-Bloc은 재래 단열재 내화벽돌에 비해 에너지 절감율이 40%이상 높은 초고온(800~1400°C에 가장 적합) 내화단열재 '카울'의 한 종류로서 에너지절감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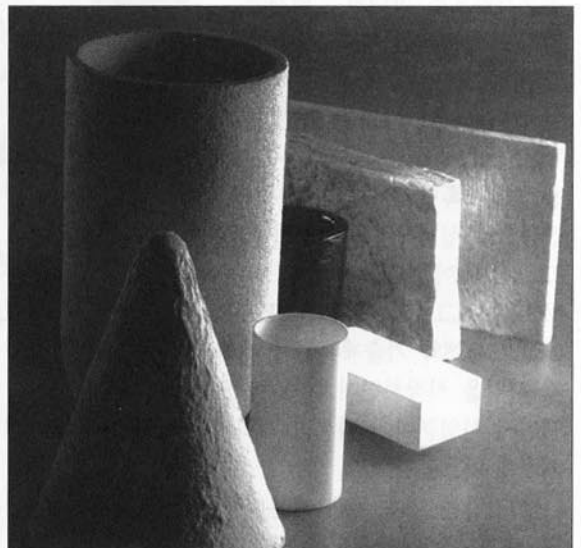
KAOWOOL Pyro-Bloc

견고성이라는 세라믹단열재의 일반적인 장점외에 덩어리 형태라 시공이 간편하여 시공, 보수에 관한 비용 절감측면에서도 효율이 아주 우수하여 앞서 말했듯이 세계특허를 받은 상품이다. 특성화 된 제품인만큼 국내에서도 POSCO, 한보철강, 한국중공업, SK 등에 납품하여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세계시장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이런 납품실적을 올리기까지는 대외적으로 호평된 제품의 우수성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끊임 없는 기술개발로 세라믹 단열재 국산화를 이루어낸 가람의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발로 뛰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장을 넓힌 영업사원들의 몫도 크다하겠다. 여기서 인기상품 Pyro-Bloc이 태어난 셈. 90년초 사업초기만 해도 고가의 제품이라는 것 때문에 시장을 뚫기가 어려웠지만 설비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라 단열재 중에서도 열효율이 높고 시공이 간편한 것이 검증되고 부터는 시장 개척이 점점 용이해졌다. 말하자면 5년여의 시간에 노력이 보태어져 Pyro-Bloc이라는 인기상품이 태어난 셈이었다.

■우선 기업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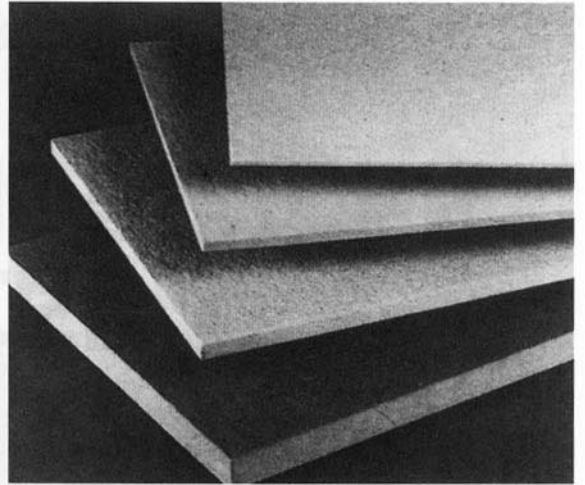
봉사하는 마음, 겸손한 몸가짐, 긍정적인 사고 봉사



KAOWOOL V/F Shapes



공업로&열처리산업전 전시회참가



KAOWOOL CERABOARD

겸손, 긍정은 (주)가람의 사훈이라고 한다. 이는 박성훈 대표이사가 정한 것으로 (주)가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원은 겸손한 몸가짐으로 자신보다 남을 높이는 인간애를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 기업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라고 성영창 이사는 일러준다. 특히 긍정적인 마인드는 경기성장률에 따른 매출목표에서도 엿볼 수 있었는데 (주)가람은 올해 매출 목표를 205억을 책정, 작년매출의 30%이상 신장을 바라보고 있다. 성영창 이사는 올해 우리나라 경기 성장률을 6%이상으로 바라보고 현재의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한다.

그밖에 사무 운영 방침에서 글로벌 경영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바로 투명경영의 실현으로 기업 경영을 직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히고 6개월에 한 번 부서별 업무성과 발표회를 열어 성과에 따라 포상하는등 열린 경영을 하고 있었다.

■(주)가람의 저력

박성훈 사장은 많은 중소기업의 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엔지니어 출신이다. 현재 세라믹 단열재 국산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엔지니어 출신으로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관심을 갖고 개발을 계속하여 현재의 카본분야와 세라믹 단열재 분야에서 우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

력에 힘입어 (주)가람은 96년에 ISO 9002인증을 획득했고 98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100PPM 품질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100PPM경진대회 대통령표창 수상) 자체 개발 연구소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고 산학협동도 활발하다. 영남대, 아주대, 한양대, 명지대 무기재료공학부와 함께 초고온 단열재와 카본에 관해 연구를 해오고 있다.

이는 경기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개발사업을 꾸준히 이뤄온다는 기술개발위주의 장기 성장 목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 (주)가람을 탐방하면서 기자는 전문적인 기업의 자신감을 느끼고 돌아왔다.

공업로, 열처리를 비롯 어느분야든 주문자가 원하는 대로 자재구매에서부터 전체설계, 시공, 감리, A/S까지 해낼 수 있어 오히려 큰 공사일수록 자신이 있다는 성영형이사의 말은 (주)가람의 자신감에 비롯되어 있는 것 같았다.

바야흐로 글로벌 경영시대, 특성화 된 제품으로 전문화된 기업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중소기업의 모범 예가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문의전화: (0342-735-5100 (주)가람/세라믹사업부)

〈취재/정리 윤소희 기자/zpifairs@chollian.net〉